



이도범 홍보편집위원회 이사
(주)대림산업 기술연구소 부장
dblee@dic.co.kr

송실대학교

– 초대형 건축물

엔지니어링 전문가 과정 설명회

- 일시 : 2001. 6. 7(목) 16:30
- 장소 : 송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소예배실

이날 설명회는 유봉환 송실대 산업기술정보대학원장의 인사말, 김종락 송실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과정 개요에 대한 설명에 이어 Cornell 대학 전문가 과정의 소개, 초대형 건축물의 전문가 교육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송실대 건축공학과 최완철 교수는 Cornell 대학 토목환경공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수행 프로젝트, 프로그램 특징 등 Cornell 대학 전문가 과정을 소개하였고, 송실대 전문가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우구조 진봉수 대표는 초대형 건축물의 구조전문가 교육방향이라는 제목 하에 전문가 과정의 목표와 강의 내용을, 김학문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초대형 건축물의 지하구조물의 시공 및 설계 방법, 초대형 건축물의 기반기술전문가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김종훈 한미파슨스 대표가 설명하였다.

수입철근의 피해 현황

수입철근이 유통업체의 하치장에서 국산제품으로 둔갑돼 건설 현장으로 공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산 철근과는 달리 외국산 철근은 색상표시와 양각이 안된 상태에서 하치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일부 철강유통업체들이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한 철근을 자사 하치장에서 국산제품과 동일하게 철근의 끝부분에 노란색(고장력) 또는 녹색(일반)의 페인

트칠을 하고 꼬리표를 때어내 현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국산 제품에 비해 마진폭이 높고 무도색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설 및 철강업체는 일반철근을 노란색으로 도색, 고장력으로 현장에 공급될 때는 공사부실은 물론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국산철근과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급될 경우 시장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외국산 철근은 수입국가와 생산업체, 수입업체의 이름을 명기하는 동시에 노란색이나 녹색이외 다른 색상으로 칠해 국산과는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기술자료 통합기술 정보 시스템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대한주택공사는 설계 등 각종 주택 관련 기술자료를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기술정보시스템(ITIS)을 개발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ITIS(아이티스 :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는 건설 CALS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해 주공과 관련된 설계, 시공회사간의 설계도면 교류 및 대국민에게 주공의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업체만 사용 가능한 지 구별 도서, 가입자가 조회 가능한 시방서, 기술업무지침, 자체 정보, 업체 정보의 5개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간 10만장 이상 생산되는 설계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공사설립 이후 40여년간 120만 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건설기술 경험과 지식을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는 주공 통합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itis.jugong.c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건교부, 건설신기술 복덕방 운영

건설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 제공하고, 신기술의 중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1. 4. 2(월)부터 「건설신기술복덕방」을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제도안내, 질의·회신사례, 신청기술 접수처리현황, 분야별 원문(full-text) 검색, 활용현황 등을 제공하게 되며, 발주기관에서는 신기술 검토·적용시 동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예산 절감과 품질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활용촉진은 물론,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신기술복덕방」은 인터넷(<http://www.kict.re.kr>)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안전무시 리모델링 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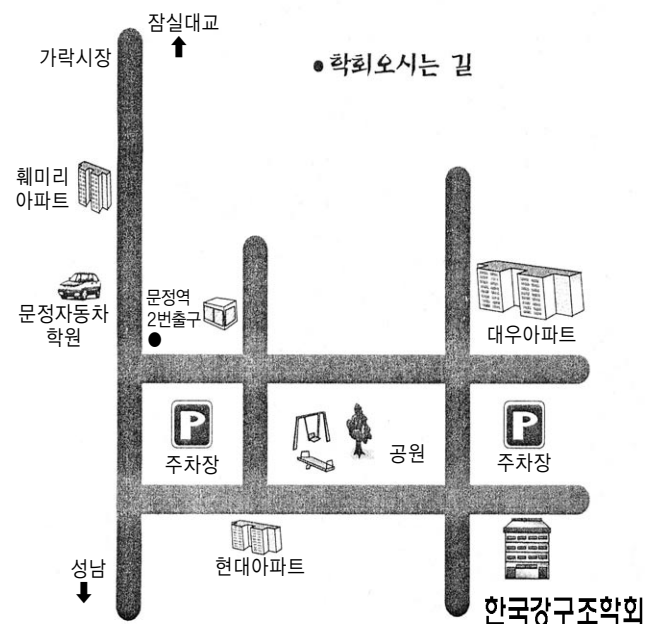
리모델링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면서 구조상의 안전을 무시한 아파트 개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단지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각종 인테리어업자들이나 영세 전문업체들이 리모델링 시행 광고를 내면서 세대주들이 이들 업체에 개조를 위탁하는 사례들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별 가구 차원에서 건물 구조상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내력벽을 허물어내고 공간을 넓혀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청 사례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중량이 큰 대리석을 기존 슬라브 위에 그대로 시공해 놓거나 베란다를 거실과 통합한 후 무거운 조경시설을 설치해 놓아 건물의 피로도를 높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한국강구조학회 시립대 김동규 교수 회장취임

2001년 4월 7일 한국강구조학회 제4회 평의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김동규 교수는 2001년 6월 2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열린 2001년도 제12회 한국강구조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우리회에서는 축하화분을 전달하였다.

한국강구조학회 회관 개관



- 이전일자 : 2001년 6월 13일(수)
- 이전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06-18(우. 138-200)
- 전화번호 : (02)400-7101(대), (02)400-7108-9
- 팩스번호 : (02)400-7104

- 이/ 전/ 안/ 내 -

(주)MIDAS IT 회사 이전

-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동관 11층
- 전화: (02)2142-0001 - 팩스: (02)2142-0011

한미파슨스(주) 회사 이전

-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빌딩 9층
- 전화: (02)3429-6300 - 팩스: (02)3429-6363/6364

2001년도(제12회)

한국강구조학회 정기총회

2001년 6월 2일(토)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관에서 “2001년도 제12회 한국강구조학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2001년도 학회상 시상’, ‘2001 POSCO 강구조 작품상(제8회) 시상’에 관한 보고, ‘2001년도 평의원 선출 투·개표 결과보고’가 있었다.

학회상 시상에서 김종호 대표이사(주)창·민우구조컨설턴트는 기술상을 시상하였고, POSCO 강구조작품상 은상에 ASEM 및 무역센터(전우구조+창·민우구조), 동상에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센구조+CROSS구조), 인천국제공항공항관리청사/상주기관합동청사(동양구조),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울산사옥(서울구조), 특별상에는 서울대 SPORTS COMPLEX(POS-A.C)가 선정되어 시상식은 2001년 6월 12일에 있었다.

또한 한국강구조학회 평의원 선출결과 총15명 중 전봉수 대표이사(주)전우구조, 김종수 대표이사(주)CS구조, 이문곤 대표이

사(주)정일구조, 김석구 대표이사(주)3D구조 허명재 교수(인천대학교) 5명의 우리회 회원이 한국강구조학회 2001년도 평의원에 선출되었다.

**2001년도 전국대학
건축관련학과 명부발간**

(사)대한건축학회에서는 2001년 3월부터 각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2001년 4월 현재부로 최종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총 231개 건축관련학과와 현황 및 교수의 인적사항을 집대성하여 명부를 발간하였다.

(*구입문의: 대한건축학회 사무국(02-525-1841~4)

**각 협회간 중복인력조사 및 학력,
자격 상벌 확인작업 추진**

건설감리협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4,974명에 이르는 협회간 중복기술자에 대해 기술자 개개인의 국가기술자격사항과 학력사항, 교육훈련 사항, 상훈, 제재, 부실벌점 등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여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확인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술자들의 경력 누락이나 오기,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KSEA**